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답변



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

- ☑ 북대전권역 대중교통 증설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 청소년 중독예방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정질문과답변내용(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이 금 선 의원

◎ 이금선 의원

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 설계도에 시민이 바라는 미래상을 거침없이 채우시는 이장우 시장님, 대전교육 성공시대를 열고 계신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대전권역 대중교통 증설방안, 청소년 도박과 마약중독 예방 등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현안사항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북대전권역 교통 문제에 관한 사안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북대전권역이 첨단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산업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심도 있는 견해와 해결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우리 대전은 탐립·전민지구와 원촌지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본 지구는 혁신신약 연구개발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으로 지정되면서 세계적 제약기업인 머크사를 비롯한 51개 선도기업이 2037년까지 총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수도 대전의 북대전권역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이끌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구개발 허브인 대덕개발특구와 첨단산업 클러스터인 대덕테크노밸리가 견고히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둔곡·신동지구까지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며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인 대중교통 인프라는 현저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심각한 상황과 관련된 몇 가지 현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족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용산지구에는 3,50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관평동 전체는 1만 4천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램이나 지하철 노선이 없어 버스의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2023년 8월부터 세종시와 공동으로 배차하여 운행을 시작한 1001번 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 탑립동이나 봉산동으로 운행하던 버스에 노선만 연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20~30분에 달하는 과도한 버스 배차간격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용산지구를 비롯한 인근 지역주민들은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이라는 의미로 관평섬·전민섬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인 신동·둔곡지구의 경우는 100여 개의 기업과 2,5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며 새로운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중인 버스노선은 고작 3개에 불과합니다.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여 시외버스를 기다리는 격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단적인 예로 현재 이 권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전역으로 갈 경우 34개소의 정류장을 빙빙 돌아서 한 시간 반 이상 소요됩니다.

이는 대전에서 서울까지 KTX로 이동하는 시간보다도 긴 것으로 효율성이 매우 떨어

어집니다.

두 번째, 북대전 진입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대덕대로와 유성대로의 만성적인 정체현상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북대전IC 인근 도로의 정체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나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로의 신속한 물류 흐름 및 이 지역 출퇴근 시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시 전체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는 2019년부터 용산지구에서 유성대로를 연결하는 총 1.25km의 우회도로 신설과 청벽산공원사거리에서 전민동 엑스포아파트까지의 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성대로 연결도로 2구간 개설사업은 교통량이 많아 혼잡한 북대전IC 대덕대로를 우회하는 제2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용산지구 사업자인 용산개발에서 사업비의 50%인 220억 원의 부담금을 2022년 납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대전권역 대중교통 증설 및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 이장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전시는 2024년도에 국비보조사업을 통해 164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에 따른 매칭시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축소되고 그 중 15대만 증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에서 의지만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다면 북대전 지역의 교통불편은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대전 권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단기 또는 중장기 로드맵은 갖고 계십니까?

로드맵이 있다면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특히 배차간격 단축과 노선 확충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가 교통량에 대한 대처와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유성대로 연결도로 2구간과 청벽산공원사거리에서 전민동 엑스포아파트까지 도로 확장사업과 관련입니다.

지난 제276회 임시회를 통해 5분자유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보상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기와는 별도로 추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에서는 도안대로에 신교통수단인 무궤도 트램을 시범운행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구즉·관평·신성·전민동에도 확대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북대전권역에 신교통수단을 확충하는 일은 오랜 시간 단절되어 있던 대전의 북측 권역을 도시의 중심으로 이끌어내는 현명한 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시장님, 대전시가 세계적인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인프라의 확충과 더불어 도시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의 하나인 교통의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도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제시를 기대하며 우리 대전시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혁신도시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뉴스를 잠시 보겠습니다.

(14시 10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11분 영상자료 종료)

교육감님은 혹시 토사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토사장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를 일컫는 은어인데 토사장을 장래희망으로 꿈꾸는 아이들이 꽤 있다는 소식에 교육위원장으로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도박이란 불확실한 결과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인정하는 7개 사행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법도박입니다.

하지만 합법도박이라 하더라도 이는 성인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청소년이 하는 도박은 어떤 형태이든 불법도박이 됩니다.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실시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서 초·중·고교생 10명 중 4명은 도박성 돈내기 게임을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처음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평균연령도 11.3세로 나타나 12.5세였던 2년 전 조사에 비해 더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내기 게임에서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불법도박의 주요형태인 사이버도박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과 유사해 아이들이 경계심 없이 접근이 가능해 쉽게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도박은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경제적 문제로까지 이어져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등 또 다른 범죄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기의 도박은 성인기 도박중독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했을 경우 중독으로 쉽게 빠져들고, 지속성과 결과의 심각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청소년기의 사이버도박 예방이 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해 전국의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88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도박 진단조사에서 약 3.3%의 아이들이 사이버도박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버도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제5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현재까지 대전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도박 실태조사 실시현황과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박예방교육 운영학교 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올해 대전시 관내에서는 도박예방교육 운영학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지만 학교사업선택제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아쉽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박예방교육 운영학교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최근 3년 간 도박예방교육 운영학교 사업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문기관과의 협업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넘어 예방과 치유로 연계되는 협업시스템 운영이 필요합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현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협업시스템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선제적 예방교육, 도박중독 선별검사, 선별 후 조기개입, 신속한 치유서비스 연계 등의 협업시스템 운영방안을 제안합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현재 구축하고 있는 협력체계의 구체적인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협업시스템 운영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마약 사범은 2만 명이 훌쩍 넘어 1990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년도 대비해도 약 50.1% 증가했습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 481명 대비 약 207%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마약사범 현황을 살펴봐도 10대 마약사범은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과 대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 패치는 마약에, 나비약과 ADHD 치료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마약류진통제 펜타닐 패치 사용경험은 10.4%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 복용경험은 0.9%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류의 구매방법으로는 병원 처방이 94.9%로 나타났는데 2020년 이후 10대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해마다 느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조례 기반 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시교육청에는 현재 마약류 관련 2개의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와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입니다.

제가 대전시교육청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살펴보니 조례에 기반한 사업추진 현황이 없었습니다.

이에 향후 대전시교육청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조례 내용이 반영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독재활센터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감님은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에 가보셨습니까?

이곳은 지난해 7월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대전에 개소한 중독재활센터입니다.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회복·사회복귀를 위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 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 마약재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역의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 구축하고 있는 협력체계에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도 추가해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청 자료를 받아보니 2023년 10월 개정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도 예방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마약예방 의무교육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형태인 가정통신문이나 전문가 초빙강의도 의미 있지만 수업시간에 학생 참여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과 연계하는 교육방안을 제안합니다.

사회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다면 아이들 스스로 마약류 문제를 고민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대전시 관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교육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에게 중독현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안으로 음주, 스마트폰, 도박, 유해

약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중독 중에서 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도박과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지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오늘 제가 질문드린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현안이 시민의 삶에 의미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길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이금선 의원님께서서는 북대전권역 대중교통 증설 및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대중교통 인프라 조성 및 시민편의 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대전권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테크노 그리고 둔곡·신동지구에 대한 교통이 아주 불편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이에 대한, 특히 북대전권역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북대전권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에, 특히 취업해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출퇴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그 지역의 기업인들로부터도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침단2번을 신설하기도 했고요.

또 세종 집현동에서 대전시청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 시내버스 1001번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8월에 신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버스를 증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버스회사의 출차가

계속 지연돼서 아마, 버스회사도 지금 수주받은 버스가 너무 과부하 걸려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런 어려움도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대전권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대덕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경유하는 간선급행버스 B1이 있는데 4대를 증차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둔곡교차로 정류장을 내년도 2월에 준공하게 되는데 시에서는 B1 버스를 추가로 정차시킬 생각입니다.

또 접근성 향상과 편리한 환승을 위해서 첨단2번의 배차간격도 단축해서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B1 증차분에 대하여 용산동과 불편한 관평동을 경유하는 이원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중장기적인 계획으로는 2028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에 맞춰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대전권역의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노선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탐립·전민지구의 산업단지 조성 또 연축지구, 대덕테크노밸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연결해서 시내로 빠르게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요 거점시설인 대전역 또 내년 말쯤 준공 예정인 유성복합터미널 또 둔산동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급행버스, 간선버스 노선도 좀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와 환승이 가능한 지선 노선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 후에 북대전 지역을 경유하는 도시철도 3호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버스 중심으로 개편하고 도시철도 3호선이 됐을 때 용산·관평 지역을 포함한 신동·둔곡에서 도시철도 3호선 노선에 지선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도시철도 3호선이 테크노, 신탄진 해서 세종까지 함께 연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을 하면서 3호선도 잘 추진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유성대로 연결도로 2구간 개설사업의 지연사유와 대책을 물으셨는데 송강, 대덕 산단, 신탄진 등의 북부 지역하고 대전 중심권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대덕대로 등이 사실 주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특히 북대전IC 주변이나 신탄진IC 주변이 고속도로 통행량까지 더해져서 아주 혼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북대전IC 주변 혼잡상황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계획사업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은 행복청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기간은 202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2028년에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도 행복청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유성대로 연결도로 2구간 개설과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 이 또한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대로 연결도로 2구간은 2019년 8월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조성사업 통합심의 시에 우리 시와 사업자가 사업비의 50%씩 부담하기로 했던 것도 아마 의원님 잘 알고 계실 텐데 2021년 12월 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우리 시가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지난해 5월까지 설계완료 계획이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금년 6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 가까이 설계가 늦어졌고 11개월가량 지연됐는데, 사실 행정절차라는 게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여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개혁해야 할 게 행정적인 절차부터 줄여야 된다, 산단 하나 하는 데 6년, 7년, 도로 하나 하는 데 교통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설기술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설계안전성검토, 이런 것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업들이 늦어짐으로써 국가경쟁력에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11개월 가까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보상비를 연차별로 나누어 편성하지 않고 올해 전액 모두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쯤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적기에 공사비를 투입해서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백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사업 지연과 관련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본 사업은 대덕연구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엑스포로를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만 2020년부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가 2022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토지보상절차를 추진함에 따라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2025년, 내년 5월까지 수용재결 등 보상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서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비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50억 원 중 현재 투입된 95억 원을 제외한 155억을 내년 이후에 전액 시비로 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용산지구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맞물려서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때문에 2027년 완공 전까지 엑스포로 도로확장사업이 함께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대전권 관평동, 구즉동 등 신교통수단 도입도 추가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는 도심 공간구조 변화나 균형발전 그리고 저비용·고효율의 교통수단 또 빠른, 짧은 기간에 구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대덕구 신탄진에서 동구 산내로 연결된 3호선을 사실상 계획해 왔기 때문에 도시철도 3호선 노선 안에 과연 우리가

신교통수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가수원사거리에서 유성까지 놓는 신교통수단에 대한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쯤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시민들 반응이나 교통 수송량 그리고 안전성, 비용 이런 것을 봐서 정말 효과적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신기술, 신교통수단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도 국토부와 상의해서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한번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런데 우선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제대로 되어야 추가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바퀴 달린 트램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타보니까, 약간 구형입니다만 스위스 제품은 조금, 여러 가지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브리즈번에 가서 아마 타보셨을 텐데, 그것은 제가 못 타봤습니다만 디자인도 훨씬 세련되고 그렇던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도 시범사업을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교통수단이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버스로 볼 거냐 아니면 트램으로 볼 거냐 철도로 볼 거냐,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실증특례 신청을 11월 13일에 했고요.

12월 초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규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현재 규제가 있지만 빠르게 실증특례, 새로운 신기술 도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특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면 비록 법과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과 동시에 사업성의 효과, 시민 만족도 등 다양한 사업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 노선에 대한, 3·4·5호선뿐만 아니고 도시철도 1·2호선 그리고 3·4·5호선, 광역철도에서 가장 교통수요가 시급한 구간에 지선도 투입할 수 있는 단거리 구간, 예를 들면 한 5km에서 7~8km 안에, 그런데 이 수단은 보니까 일단 직선거리가 훨씬 유리하고요.

물론 굴절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가능하면 버스전용차로 정도 원활하게 확보되어 있는 코스라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금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대전권에 대한 신교통수단 그리고 교통권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수단을 검토해서 북부권에 대한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금선 의원님께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지역 청소년 대상의 사이버도박 실태조사 실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 도박 문제 자가진단을 통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관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가 10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초 4학년부터 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로 조사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실시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해당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통계치를 공식화하고 2025년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 등 정책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대전 지역 사이버도박 실태조사 결과는 여성가족부에서 공식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대전 지역 학생들의 위험군 비율은 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저학년 및 남학생의 비율이 높은 특성은 전국 통계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저연령화와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내부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대응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박예방교육 운영학교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도박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의원 한 분과 도박 문제 전문가 3명이 포함된 도박예방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도박예방교육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교과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연 2회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방위적인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예방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도박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홍보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방법을 연구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이 증대하여 장기적으로 도박 문제 발생을 낮추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박예방교육 운영학교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2025년 예산액을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하여 더욱 강화된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박예방교육 운영학교를 10개교로 확대하여 조기 예방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학교급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최신동향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기관과의 협업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도박예방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박예방교육위원회에 대전 시의회 의원 한 분과 대전충남도박예방치유센터 소속 전문가 2명, 청소년상담 전문가 1명을 포함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센터 및 대전광역시경찰청과 연계하여 도박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전문강사와 학교전담경찰관이 일선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도박예방교육 역량 강화 연수와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대전충남도박예방치유센터와 연계해서 조기 개입 및 고위험군 치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함께하는 사이버도박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같이 처벌과 징계보다 예방과 보호, 상담, 훈육, 계도에 중점을 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5년도에도 선제적 예방교육, 도박중독 선별검사, 선별 후 조기 개입, 신속한 치유서비스 연계 등의 협업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업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도박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과정 내 도박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도박예방교육 운영학교를 확대하며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관련 조례에 기반한 정책시행 제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은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관련 조례 기반 정책시행을 위해 3월 흡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건강조사 설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강사 지원을 받는 등 마약중독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및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담당교원 심화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사용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마약류 상품명 광고사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대전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캠페인 및 정보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주변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기관인 충청권 마약류중독재활센터와의 협력사업 제안에 대해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독재활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 심리검사, 재활 및 가족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약물 사용 유경험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해 중독재활센터와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약물 사용 유경험자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대상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 뮤지컬 공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예방 교직원 연수도 중독재활센터와 연계하여 더 많은 연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관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현황과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위해 학생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찾아가는 마약 예방 공연 및 방문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학습활동과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전교육정책연구소에 제안하여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교과 연계 방안을 자체 연구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업시간에 학생 참여를 통한 교육을 위해 체험·참여 중심의 ICT 마약 예방 교육자료 8차시를 개발 중에 있으며 학습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12월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2023년 전체 학교 308교 중에 139교에서 1 내지 2시간, 111교에서는 3 내지 4시간, 58교에서 5시간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유·초·중·고별로 확대된 교육시간에 따른 교육실시 현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이 중독에 좀 더 취약한 이유가 단지 그들이 충동적이라거나 이성이 덜 발달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의 뇌가 성인의 뇌보다 중독에 더 취약한 구조와 관련된 호르몬 및 신경전달물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와 실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시기에는 같은 자극에도 더 큰 쾌감을 느끼고 뇌에 영향을 주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중독 문제는 종합적인 접근과 협력이 필요하므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현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하겠으며 우리 지역사회 또 관련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이금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